

목차

목차	2
기사자료	3
시와 음악 대구에 스미다	3
첨부파일(1)	3



기사자료 자료실 > 기사자료

시와 음악 대구에 스미다

작성일 2023.03.2417:06

등록자 시문학파기념관

조회수 89

다운로드 첨부파일(1) 😭 20230324_162310.png 9 hit/817.2 KB



"시와 음악 대구면에 스며들었다"



강지군 시문학파기념관이 추진중 인 찾아가는 시문학파기념관 '시와 음악, 대구에 스미다'가 성황리에 마 무리됐다.

지난 24일 대구면 카페 천년에서 첫 추진할 계획이다.

찾아가는 시문학파기념관 청자축제장서 행사 개최

제를 맞아 청자존내에서 행사가 진행

찾아가는 시문학파기념관 '시와 음 약, 대구에 스미다'는 제목 그대로 주 민의 삶 속으로 직접 찾아가 소통하 며 문학적 감수성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

앞으로 강진읍은 5회 진행되고, 10 작재구 시인의 '칠석 개 면은 매달 한 차례씩 총 15회에 거 송해 박수를 받았다.

관용객과 대구민민 등 100여명이 참 이날 '행시는 김종심씨가 여는시로 석한 가운데 행사가 열렸다. 지난 1월 병영민에 이어 두 번째로 시를 난송하며 시작됐다. 이어 박종 석한 가운데 행사가 열렸다. 이체 작가의 '아버지의 눈물'이라는 가 마무리됐다. 문학 예술에 대한 열정과 사망을 토 지난 1월 병영면에 아이 두 번째로 서를 남송하며 시작됐다. 아이 박종 찾아가는 사문학과기념관 행사는 열린 이번 행사는 제51회 강진청자축 위씨가 꽃길 등 2곡을 색소폰으로 연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첫 나가겠다"고 밝혔다. /울준식 기자

청자를 만들기까지 이야기를 관객들 에게 전달하며 잔잔한 감동을 전해

이어 양한나, 양지선, 권유주씨가 바이올리노가 비올라, 첼로를 함께 '헝가리 무꼭 5번' 등 클래식 2곡을 연 주하며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러다. 이 어 베트남 이주여성 윤지혜씨가 자신 의 딸 공지영양과 함께 무대에 올라 이석우 시문학파기념관장은 "이번 꽉재구 시인의 "철석날'이란 시를 당 행사로 대구면민의 문학적 소양이 높

행사의 마지막은 김은영 재즈보컬 리스트가 출연해 노래를 부르며 행사

주했다. 이어 이야기가 있는 삶 시간 '화요일밤의 초대손님'타이플로 총 에는 청자축제를 맞아 청우요 윤윤 83회를 지역민과 함께 해오다. 군민 섭 작가가 출연해 강진에 정착하며 과의 보다 활발한 소통과 지역 맞춤 과의 보다 활발한 소통과 지역 맞춤

형 진행을 위해 이름을 바꿨다. 시문학파기념관의 이번 프로그램 은 지역민의 단기 일자리 창출 기여 은 시역단의 단기 될사되 성을 기어 와 시 문학 예술인 발굴이라는 측면 에서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. 기회부 터 구성, 연출까지 전체 과정을 지역 민이 주도하기 때문에, 참여자들의 사기 진작 효과도 기대된다.

아졌길 기대한다.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"며 "앞으로도 강진군민의 시

목록

COPYRIGHT © GANG JIN-GUN. ALL RIGHT RESERVED.

GANGJIN **Web Contents**

